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8일 군무원 국어

2020. 07.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홑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제 빨간 모자를 샀다.
② 봄이 오니 꽃이 피었다.
③ 남긴 만큼 버려지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④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

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①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②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왔다.
③ 가벼운 물건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던지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④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3.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핸드레일(handrail) → 안전손잡이
② 스크린 도어(screen door) → 차단문
③ 프로필(profile) → 인물 소개, 약력
④ 팝업창(pop-up 窓) → 알림창

4.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은?

비유(比喩/譬喩):「명사」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① 요즘은 회사의 경영진에 합류하는 <u>블루칼라가 많아지고 있다</u>.
②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u>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u>.
③ <u>내부의 유리 천장은 없으며</u> 여성들의 상위적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④ 사업이 실패한 후 <u>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u>.

5.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①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②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③ 신체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를 결정한다.
④ 매일일정량의 운동을 통해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6. 국어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① 종로 2가 Jongno 2(i)-ga
② 신라 Silla
③ 속리산 Songnisan
④ 금강 Keumgang

7.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 다른 것은?

- 사동사(使動詞):『언어』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
- 피동사(被動詞):『언어』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① 보다 ② 잡다
③ 밀다 ④ 안다

8. ㉠의 처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쥔 어른 계서유?"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 제 이번에는 짜장 인끼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 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저어, 하룻밤만 드새고 가게 해주세유."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짚신 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유."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비어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모아 짠지쪽하고 갖다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물은 듯싶은 만치 대구 추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시나브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단게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①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②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
③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였다.
④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9.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u>혼자</u> 밥을 먹고 있었다.
② <u>정녕</u> 가시겠다면 고이 보내 드리리다.
③ 나는 과일 중에 사과를 <u>제일</u> 좋아한다.
④ <u>둘째</u>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맏며느리 착한 줄 안다.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가 갖고 온 변화는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삶-㉡위축된 경제와 단절된 관계와 불투명한 미래까지-에서부터 일상의 작은 규칙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등 삶의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 이후의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이지만 반대급부도 분명 존재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가운 현실의 이면에는 분명 또 다른 내용의 속지가 숨겨져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고 ㉢방역 의료 체계가 발전하고 환경오염이 줄고'와 같은 거창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홀로 있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 들여다보기가 가능해졌다.

① ㉠ 沈滯
② ㉡ 萎縮
③ ㉢ 紡疫
④ ㉣ 且置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녀는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
②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담아라.
③ 그는 세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④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12.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①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②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위 사람에게)
살펴 가십시오.
③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십시오.
④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4)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①)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의 이기(二氣)의 정묘함을 포괄(包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써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簡要)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②) 이 글자로써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③)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기는 율려에 잘 맞는다.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④)

-<훈민정음해례(解例)>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중에서

13. 다음 (가)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글자는 고전(古篆)을 본떴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음(音)이 칠조(七調)를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14.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리고 ② 그런데
③ 그러므로 ④ 왜냐하면

2020. 07.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5. 우리말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② 저녁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③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
④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 밑줄 친 '성김'과 '빽빽함'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조정, 허와 실의 보완, 성김과 빽빽함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① 곱다 : 거칠다
② 무르다 : 야무지다
③ 넉넉하다 : 푼푼하다
④ 느슨하다 : 팽팽하다

17. 한글 맞춤법에 옳게 쓰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는 먼저 미역을 물에 ㉠담궈 두고 밥을 ㉡안쳤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불을 ㉢붙였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생선도 ㉣졸였다. 마지막으로 두부에 달걀옷을 입혀 ㉤부쳤다. 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하느라고 했는데 생일상치고 영 볼품이 없는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비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많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삶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① 見利思義
② 勞謙君子
③ 修己安人
④ 梁上君子

19. 다음 밑줄 친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와 쓰임이 같은 것은?

① 조선의 독립국임
② 천(天)의 명명(明命)
③ 인도(人道)의 간과(干戈)
④ 대의(大義)의 극명(克明)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① 정돈(整頓)되었다.
② 정제(精製)되었다.
③ 정리(整理)되었다.
④ 정착(定着)되었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①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그림자는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② 페르소나를 멀리 하게 되면,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
③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커진다.
④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

22. 낱말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맑고 → [말꼬]
② 끊기다 → [끈기다]
③ 맏형 → [마텽]
④ 밟고 → [밥 : 꼬]

23. 단어의 구조가 다른 것은?

① 도시락
② 선생님
③ 날고기
④ 밤나무

24.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프로폴리스'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 요법제라고 하고, '설파제' 같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 요법제라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은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보다 효과가 좋게 합성한 것들이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화학 요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이다. 그 밖의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크린', '클로로마이신' 등과 같이 세균세포의 단백합성에 장애를 만들어 항균 효과를 나타내거나, '퀴노론', '리팜핀' 등과 같이 세균세포의 핵산합성을 저해하거나, '포리믹신' 등과 같이 세균세포막의 투과성에 장애를 일으켜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

① 항생제의 정의
② 항생제의 내성 정도
③ 항균 작용의 기제
④ 항생제의 분류 방법

25.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결국 평생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어. 식량 배급은 당장 그만두어야 해.
② 네가 술 한 잔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애초부터 술 마실 생각은 하지마라.
③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 부모는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④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고,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식이요법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8일 군무원 국어

2020. 07.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②	④	③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③	②	③	④	④	③	④
21	22	23	24	25					
①	②	①	②	④					

01 ④ 현대문법-문장의 갈래

홑문장과 겹문장은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의 개수로 구별할 수 있다. ④의 문장은 '주어(장미꽃이)~서술어(피었다)'의 구성으로 된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빨간=빨갛+ㄴ(관형사형 어미)'의 구성된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이다.
② 연결어미 '-니'를 사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③ '남긴=남기+ㄴ(관형사형 어미)', '버린=버리+ㄴ(관형사형 어미)'의 구성으로 된 관형절을 안은 두 개의 겹문장이 다시 대등적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 되었다.

02 ③ 어법-바른 표현

③의 '나'는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따라서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키는'은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차량 파손을 일으키는'의 구조로, 대등적으로 바르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받다'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이다. 따라서 부사어 '남에게'를 넣어서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환담(歡談)'은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주가 조문객들과 환담을 한다는 것을 어휘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문맥상 '대화를 나눈 후' 또는 '인사를 나눈 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형용사 '여간하다'는 '아니다', '않다' 등의 부정어 앞에 쓰인다. 따라서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03 ② 어휘-순화어

② 스크린 도어(screen door)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이다.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스크린 도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문'으로 순화를 권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핸드레일(handrail)은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안전^손잡이'로 순화하였다.
③ 프로필(profile)은 '약평(略評)', '인물 소개', '인물평'으로 순화하였다.
④ 특정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생성되는 새 창을 일컫는 팝업창(pop-up 窓)은 '알림창'으로 순화하였다.

[참고] 철도 용어 순화(2018년)

1	핸드레일(handrail)	안전^손잡이
2	량(輛)	칸
3	격간운행(隔間運行)	감축^운행
4	열차시격(列車時隔)	배차^간격
5	운행시격(運行時隔)	운행^간격
6	공차(公差)	허용^오차
7	승계운전(承繼運轉)	교대^운전
8	열차(列車) 다이아(diagram)	열차^운행^도표
9	촉지도(觸指圖)	점자^안내도
10	타행운전(惰行運轉)	무동력^운전
11	역행운전(力行運轉)	동력^운전
12	퇴행운전(退行運轉)	후진^운전
13	운전사령(運轉司令)	운행^관제사
14	운전사령실(運轉司令室)	운행^관제실
15	편성(編成)	열차^편성, 열차, 대
16	주재소(駐在所)	파견소, 파견^분소, 관리소

• '^'(삿갓표)는 단어별로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는 기호이다. '^ (삿갓표)'나 '- (붙임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04 ① 비문학-표현 기법

① '블루칼라(blue collar)'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들이 주로 푸른 작업복을 입었기에 생긴 말로, 과거에는 화이트칼라와 대응되는 말로 쓰였다. 즉 '육체노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밀접하게 관계된 다른 특징으로 표현하는 환유법에 해당한다.
[참고] 대유법은 사물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사물의 일부나 특징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이다. 환유법과 제유법으로 나뉜다. 환유는 관련되는 밀접한 속성을 통해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유법은 사물의 일부로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오답 풀이]
②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다'는 좌절의 심리를 유리나 그릇이 조각나는 다른 비슷한 현상으로 비유한 것이므로 은유법이다.
③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
④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최하층을 은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② 비문학-글의 중심 내용

제시 글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요즘 들어~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까지 첫째 단락으로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락은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정착시키는 것이다'까지로서,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락의 요지를 정리하면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므로,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③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운동의 시간과 빈도'에 대한 설명이 요약되지 않았다.
④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바르지만,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6 **④ 어문규정-로마자 표기법**

④ 금강: Keumgang → Geumgang
초성의 'ㄱ'은 'g'로 표기한다. 자연지물명은 고유명사이므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① 도로명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종로' 뒤에 '1가', '2가', '3가' 등이 뒤에 올 때에는, 뒤에 결합된 '1가', '2가', '3가' 등이 도로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종로[종노]'는 소속 행정 구역명을 말하므로 '종로 2가'는 'Jongno 2(i)-ga'로 적는다.
② '신라'는 [실라]로 발음하고, 발음에 따라 'ㄹㄹ'은 'll'로 적는다.
③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하고,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07 **③ 현대문법-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사동사와 피동사는 목적어의 유무로 판별할 수 있다.
③ '밀다'의 '밀리다'는 피동사로만 쓰인다.
㉠ 철수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졌다'처럼 쓰인다.
'밀다'의 사동 표현은 '-게 하다'의 통사적 피동(장형 사동)형만 가능하다.
㉠ 아이들에게 수레를 밀게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④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다.
① '보다'의
┌사동사 '보이다': ㉠ 친구에게 영화를 보였다.
└피동사 '보이다': ㉠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② '잡다'의
┌사동사 '잡히다': ㉠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잡혔다.
└피동사 '잡히다': ㉠ 경찰에게 도둑이 잡혔다
④ '안다'의
┌사동사 '안기다': ㉠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피동사 '안기다': ㉠ 어머니에게 아기가 안겼다.

08 **① 현대소설-인물의 상황: 적절한 속담.**

'나그네'는 주인의 물음에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어 이리저리 얻어먹고 다닌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주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임을 비유하는 ①의 속담이 적절하다.

①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아주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② 태산 명동(鳴動)에 서일필(鼠一匹): 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뜻으로, 아주 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하여 결과는 별것 아닌 것을 비유하는 속담.
③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였다: ㉠버리자니 아깝고 파내자니 품이 들어 할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성가신 어떤 방해물이 끼어든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④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보리가 누렇게 익을 무렵 즉 사오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뜻으로, 형식적인 인사 차림이 너무 과함을 이르는 속담.

※[문08]출전: 김유정, 「산골 나그네」
1. 해제: 이 작품은 희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극을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여인은 순박함과 은비녀를 베개 밑으로 묻어 두고 가는 선량함 때문에 그녀의 대한 연민은 더욱 간절해진다. 이 작품은 다른 유정의 작품처럼 토속적 서민적 어휘에 구사 아이러니와 유머라는 김유정적인 기법을 보이면서 인간주의의 바탕을 두고 불행한 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단편소설
2) 성격: 토속적, 해학적
3)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4)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애정
3. 줄거리
덕돌이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산골의 주막에 어느 날 밤 젊은 여인이 길손이 되어 들게 된다. 주인(덕돌 에미)은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여인을 며칠 더 머무르도록 하는데, 소문을 듣고 주막을 찾는 술꾼들 때문에 주막은 흥청거리고 덕돌 에미는 모처럼 돈푼이나 만질 수 있게 된다. 덕돌 에미(주인)은 그녀가 큰 수입을 올려주자 집요하게 며느리가 되어 주기를 권유하여 마침내 덕돌이와 성례까지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며, 그녀 자신은 통 말이 없다.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지만 무언으로 일관하는 여인의 속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간 데가 없고 혼인 때 장만해서 모셔 놓고 아끼는 인조견 새 옷도 간 곳이 없다. 모자는 황황히 그녀를 찾아 나선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병든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근처의 폐가에 몸져누워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덕돌이는 수런대며 찾아 나서고, 여인은 훔쳐온 옷을 남편에게 입힌 뒤 밤길을 재촉하여 산길을 달아난다.』

09 **④ 현대문법-품사**

①~④의 밑줄 친 단어들은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활용하지 않으므로 모두 수식언(부사, 관형사)이다. 그리고 ④의 '둘째'는 , 뒤에 명사 '며느리'를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혼자'는 용언 '먹고 있었다'를 수식하므로 부사.
② '정녕'은 용언 '가시겠다면'을 수식하므로 부사.
③ '제일'은 용언 '좋아한다'를 수식하므로 부사..

10 **③ 한문-한자 어휘**

③ ㉢ 방역(紡疫) → 방역(防疫)
'방역(紡疫)'이란 어휘는 없다. 문맥상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을 뜻하는 '방역(防疫: 防 막을 방/疫 전염병 역)'으로 써야 한다.

① ㉠ 침체(沈滯: 沈 잠길 침/滯 막힐 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② ㉡ 위축(萎縮: 萎 시들 위/縮 줄일 축): ㉠마르거나 시들어서 우그러지고 쭈그러듦.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함.
③ ㉢ 방역(紡疫) → 방역(防疫)
• 방역(防疫: 防 막을 방/疫 전염병 역):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
• 방역(紡疫: 紡 길쌈 방/疫 전염병 역): (×)
④ ㉣ 차치(且置: 且 또(우선, 장차) 차/置 둘 치):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함.

11 ③ 어문규정-띄어쓰기

③ 세 번만에 → 세 번 만에

'만'이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세'는 관형사, '번(番)'은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각각의 단어로 씌어 쓴다.

[오답 풀이]
① -차(次):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예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 예 스승의 날에 인사차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참고] 의존명사의 '차(次)'
㉠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
㉠ 예 제36차 정기총회
㉠ 예 제일 차 세계 대전.
㉠ 예 그들은 선생님 댁을 수십 차 방문했다.
㉡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을 의미하는 경우 의존명사
㉠ 예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② '만큼'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만,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들'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만, '들'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예 다들 떠나갔구나.
㉠ 예 안녕들 하세요?

12 ② 언어예절

②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하는 인사말은 "안녕히 가십시오."이다. 친한 사이인 경우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할 수도 있다. 손아래 사람에게는 "잘 가", "잘 가라.", "잘 가거라."를, 특별한 경우 손위 사람에게는 "살펴 가십시오."도 가능하다. 간혹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의미나 '빙 돌아서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좋은 아침!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은 외국어를 직역한 말이고 이에 대한 전통적인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를 쓰는 것이 좋다.

※아침 인사
㉠ 가정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니?"
㉡ 이웃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 "잘 잤니?"
㉢ 직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③ 건강하십시오. →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을뿐더러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 명령형 문장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십시오'보다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나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오래 사십시오"나 "만수무강하십시오" 등과 같은 인사말은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④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관공서, 회사, 백화점, 시장, 음식점 등에서도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등을 덧붙여 말할 수 있다. 인사 없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만 말할 경우 목적을 바로 물음으로써 사무적인 느낌을 강하게 전하므로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를 넣어 쓴다.

㉠ '어서 오십시오.'를 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만 하면 불친절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례지만'은 불필요한 말이다.
㉢ 백화점, 시장, 음식점 등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라고 인사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서 오십시오.'를 빼고 '무엇을 찾으십니까?'라고만 하면 손님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 혼례, 회갑연 등과 같이 잔치를 치를 때는 반가움과 고마움의 뜻을 함께 담아 인사하는 것이 좋다. '어서 오십시오.' 뒤에 '고맙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등을 붙여 인사할 수 있다.

13 ① 비문학-문장 넣기

① (가)의 내용은 훈민정음 음운의 제자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의 ①의 앞부분에서 훈민정음 창제를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천지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의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

14 ③ 비문학-접속어 넣기

㉠의 앞부분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설명하면서 28자로서 모음 음에 정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인과관계 접속어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그리고: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 그런데: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③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④ 왜냐하면: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15 ② 어법-바른 표현

② 주어(저녁노을이)+서술어(지는), 주어(농부 내외가)+서술어(기도하는), 주어(모습이)+서술어(보였다)로서,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서술어 '시작한다'의 주어가 없다. 따라서 '하루 일과를'을 주어로 바꾸거나 '그의'를 '그는'으로 주어로 하고, '하루 일과를'을 서술어 바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ㄱ 그의 하루 일과를 →그의 일과는 ~ 시작한다.
ㄴ 그이 하루 일과를 → 그는 일어나자마자~하루 일과를 시작하다.
③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
'하물며'는 '더군다나'의 뜻을 가진 접속 부사로,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인다. 주로 '-랴, -다니, -느냐?, -는가?' 등과 같은 표현과 호응을 이룬다. 따라서 '하물며 ~ 덤비다니/덤비느냐?/덤비는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주어 '것은'과 서술어 '바랍니다'가 호응이 되지 않아 어색하다. 따라서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16 ③ 현대문법-어휘의 의미관계 [99년 수능 기출]

'성기다'는 '물건의 사이가 뜨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김'과 '빽빽함'의 의미 관계는 반의 관계이다. ③의 '넉넉하다 : 푼푼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푼푼하다'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17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 안치다: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 붙이다: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 부치다: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냐, 전병(煎餠)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참고] '부치다'와 '붙이다'는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붙이다'는 '붙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부치다' 역시 역사적으로는 '붙이다'와 어원이 같다. 그렇지만 '붙이다'는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고 '부치다'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 담궈→담가
ㄱ 담구다(×)
ㄴ 담그다: ㉠액체 속에 넣다.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
㉢ 졸였다→조렸다
ㄱ조리다: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ㄴ졸이다: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졸다'의 사동사.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 하느라고 → 하노라고
'하노라고'는 동사 '하다'의 어간 '하'와 어미 '노라고'가 결합된 형태로서,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표현한다. 이와 달리 '하느라고'는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느라고'가 결합된 형태로서 앞말이 뒷말의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ㄱ -노라고: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18 ④ 한문-한자성어

④의 '양상군자(梁上君子)'는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미화하여 점잖게 부르는 말로서, 행실이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군자(君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

① 견리사의(見利思義: 見 볼 견/利 이할 리/思 생각 사/義 옳을 의)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義理)에 합당한 지를 생각하라는 말.
→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간다'
② 노겸군자(勞謙君子: 勞 일할(수고롭다, 힘쓰다) 노(로)/謙 겸손할 겸/君 임금 군/子 아들 자): 공로(수고로움)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군자. 노겸(勞謙)의 노(勞)는 '수고롭다', '힘쓰다'라는 뜻이 있으니 노겸은 '수고로워도 자랑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풀이된다.
→ '자신을 낮추는 자세'
③ 수기안인(修己安人: 修 닦을 수/己 몸 기/安 편안 안/人 사람 인): (군자는) 자신의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
④ 양상군자(梁上君子: 梁 대들보 양/上 윗 상/君 임금 군/子 아들 자)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미화하여 점잖게 부르는 말.

19 ③ 현대문법-조사의 쓰임

'기쁨의 열매'에서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에 대하여 비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관형격조사이다. 즉 'A(원관념)의 B(보조관념)다'의 형태로, 'A(기쁨)=B(열매)'의 은유법이다.
③에서 '인도(人道)'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간과(干戈)' 방패와 창이라는 뜻으로, 전쟁에 쓰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인도의 간과'는 '인간의 도리라는 무기'라는 의미이므로 앞 체언이 뒤 체언에 대하여 비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은유법이다.

[오답 풀이]
①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이 독립국임'의 의미로 주격의 기능을 한다.
② 천(天)의 명명(明命):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④ 대의(大義)의 극명(克明)
'대의(大義)'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큰 도리, '극명(克明)'은 매우 분명하게 밝힘을 뜻한다. 따라서 '대의(大義)의 극명(克明)'은 '큰 도의를 분명히 함'을 뜻하므로 이때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 즉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한다.

20 ④ 비문학-어휘 [2004년 수능기출]

㉠을 포함한 문장의 의미는,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 바꿔 쓰기에 알맞은 것은 ④의 '정착(定着)되었다'이다.

① 정돈(整頓: 整 가지런할 정/頓 조아릴)가지런히 하다) 돈):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
② 정제(精製: 精 정할 정/製 지을 제): ㉠정성을 들여 정밀하게 잘 만듦.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함.
③ 정리(整理: 整 가지런할 정/理 다스릴(수선하다, 깨닫다, 이치) 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④ 정착(定着: 定 정할 정/着 붙을 착):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짐.

21 ①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것이라 했으므로 현실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하므로 근원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무기력하게 된다.
③ 그림자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과 자발성, 창의성 등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④ 그림자는 충동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2 ② 어문규정-표준발음법

② 끊기다: [끈기다] → [끈키다]
'끊기다'는 'ㅎ+ㄱ=ㅋ'되므로, [끈키다(거센소리되기:축약)]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맑고 → [말꼬]
겹받침 'ㄺ'은 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③ 맏형 → [마텽]
받침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ㅌ]으로 발음한다.
④ 밟고 → [밥 : 꼬]
'ㄼ'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예 밟다[밥 : 따], 밟소[밥 : 쏘], 밟지[밥 : 찌],
밟는[밥 : 는→밤 : 는], 밟게[밥 : 께], 밟고[밥 : 꼬]

23 ① 현대문법-단어의 갈래

①의 '도시락'은 하나의 실질형태소로 된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②,③,④는 모두 복합어(파생어, 합성어)이다.
② 선생님=선생(명사)+님(접미사)→ 파생어
③ 날고기=날(접두사)+고기(명사)→ 파생어
④ 밤나무=밤(명사)=나무(명사)→ 합성어

24 ②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법원직(2012년)]

제시 글에는 '항생제의 내성 정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답 풀이]
① 항생제의 정의: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③ 항균 작용의 기제: 항생제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죽이는 방법, 세균세포의 단백합성에 장애를 만들어 내는 방법, 세균세포의 핵산 합성을 저해하는 방법, 세균세포막의 투과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기제(機制)'는 영어 '메커니즘'을 번역한 말로 기계의 운영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기작(機作)'으로도 쓴다.
④ 항생제의 분류 방법: '프로폴리스'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 요법제라고 하고, '설파제' 같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 요법제라고 한다.

25 ④ 비문학-논리의 오류

④의 식이요법이 알콜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결론이다. '식이요법'과 '알콜중독'은 전혀 연관성이 없으므로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또는 무관한 결론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혹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이라고 한다. A를 허용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이 B→C→D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때문에 A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주장이 연쇄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에 논증의 결론이 의존하나, 사실은 그 연쇄 반응이 실제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